

한국 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 가족관계와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정영숙* 조설애

안정신 정여진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과 가족관계가 갖는 의미 정도를 알아보고 가족관계의 질과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한국 노인들은 삶의 의미 원천으로 배우자, 자녀, 정신건강, 손자녀, 신체건강, 심리적 안녕감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 노인들은 배우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여성 노인들은 자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여주었다. 배우자관계에서도 여성노인은 배우자에게 존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성노인은 배우자의 배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를 중요한 의미원천으로 생각하는 노인들 중 실제 가족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은 실제 가족관계의 질이 낮은 사람에 비해 성공적 노화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노인의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노인의 가족관계와 자기초월가치는 남녀 모두에게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삶의 의미, 가족관계, 성공적 노화, 자기초월가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 고 하며 의미 있는 삶에 도달하려고 한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303).

* 교신저자: 정영숙, Email: yschoong@pusan.ac.kr

(Baumeister, 1991; Ryff, 1995). 그리고 사람들은 가족, 직업, 종교, 개인적 성취 등 다양한 원천으로 부터 삶의 의미를 찾는다(Emmons, 1997).

그렇다면 연령에 따라 사람들이 의미를 찾는 원천이 달라지는가 아니면 전생애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원천이 있는가? 삶의 의미 원천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가족관계가 매우 중요한 원천임을 보여주고 있다(DeVogler & Ebersole, 1983; Ebersole, 1998; Klinger, 1977; Taylor & Ebersole, 1993).

유교적 전통하에서 가족주의 가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전생애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김도환, 2001; 송예현, 2001). 한국 노인들은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였으며(김영선, 1999),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현, 김동배, 김애순, 김미혜, 이영진, 1999).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으며(윤현숙, 유희정, 2006),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숙자, 2002). 서구에서도 노년기에는 가족이 노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부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노인의 생활 만족은 가족관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Streib & Bick, 1980).

성공적 노화 개념은 노년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에서 나온 개념이다(Baltes & Baltes, 1990; Rowe & Kahn, 1997; Vaillant, 1994). 그런데 연구자에 따라 성공적 노화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Baltes와 Baltes(1990)는 성공적 노화란 획득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상실을 최소화하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한 반면, Rowe와 Kahn(1997)은 신체적인 질

병이나 장애가 없고 인지 및 신체 기능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자에 따라 정의는 다르지만 성공적 노화란 잘 나이 들기, 심리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과 아울러 개인적 성장의 차원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성공적 노화를 사용하고자 한다(안정신, 장인, 김윤정, 2009).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 가족관계 의미에 관해 살펴보고, 노인의 가족관계와 더불어 개인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의 가족 관계

보통 사람들이 지닌 긍정적 자질과 행복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긍정심리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주제 중의 하나가 삶의 의미이다(권석만, 2008).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기본 욕구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미에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삶에 의미가 충만할 때 개인의 행복은 증진될 것이며(Zika & Chamberlain, 1992), 반대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게 될 것이다(Frankl, 1963). 많은 연구들은 Frankl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삶에서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Ryff, 1989), 자아존중감도 높았으며(최명심, 손정락, 2007), 위기 사건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하며(심미성, 2006; Debats, Drost, & Hansen, 1995), 심리치료에서 자기향상이 있었다(Debats, 1996). 반면에 삶의 의미가 부족할 경우, 사람들은 우울과 불안이 높았고(신희석, 2000; Debat, van

der Lubbe, & Wezeman, 1993), 자살생각과 약물 사용이 많았으며(김현지, 2008; Harlow, Newcomb, & Bentler, 1986), 심리치료가 필요하며(Battista & Almond, 1973), 죽음불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미정, 최정운, 1999).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1970년대 후반 이후, 삶의 의미 원천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삶의 의미의 원천에 관한 분류 내용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Baumeister, 1991; DeVogler & Ebersole, 1981, 1983; Ebersole & DePaola, 1987; Fiske & Chiriboga, 1991; Klinger, 1977; O'Connor & Chamberlain, 1996; Prager, 1998; Reker & Wong 1988; Taylor & Ebersole, 1993).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구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 원천으로 주로 개인적 성장, 사회관계, 이타주의, 즐거움 찾기, 영적/철학적 목표, 성취와 직업, 창의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Fiske & Chiriboga, 1991; Penick & Fallshore, 2005; Prager, 1998).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경례(2006)의 연구에서는 의미 원천을 12개의 범주-관계, 목표, 좋은 자질, 성취 및 인정, 취미 및 일상의 즐거움, 미래에 대한 기대, 자기이해 및 성장, 도움, 종교, 행복/만족, 건강, 경제적 여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삶의 원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천은 무엇인가? 여러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관계를 들고 있다. Klinger(1977)는 가장 압도적인 의미의 원천으로 인간관계 또는 미래의 목표를 들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 원천을 알아본 연구에서도 사회관계는 가장 중요한 원천임이 확인되었다(Ebersole, 1998). 즉, 아동에게서 주요한 삶의 의미 원천은 사회관계, 운동이나 취미생활과 같은

활동, 신념, 성숙, 성취, 학업과 건강 순으로 나타났다며(Taylor & Ebersole, 1993), 청소년에게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은 사회관계, 활동, 건강, 성취, 학업, 외모 순이었다(DeVogler & Ebersole, 1983). 성인에게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은 사회관계, 신념, 성숙, 직업, 친사회적 활동 순으로 보고되었다(DeVogler & Ebersole, 1981). 그리고 노인들에게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에서도 사회관계, 건강, 기쁨, 친사회적 활동, 신념, 물질적 성공 순으로 나타나(Ebersole & DePaola, 1987) 사회관계는 강력한 의미 원천임을 알 수 있다.

노인의 가족관계와 그 영향

다양한 사회관계 중 가족관계는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사회관계로, 일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Shaffer, 2008). 특히 노년기의 가족관계는 친구나 이웃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관계로(Shaw, Krause, & Bennett, 2007),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임은기, 정태연, 2009).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으로 가족과 관련된 영역(자녀관계, 가족결속, 결혼생활, 가족내 역할 및 가족 지원)을 들고 있다(최수정, 2001).

많은 연구들이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가족관계를 다루고 있다(강유진, 2011; 공수자, 한규석, 이은희, 2004; 권미애, 김태현, 2008; 김도환, 2001; 김원배, 2009; 김유경, 2000; 김태현 등, 1999; 오선영, 2008; 정태연, 2008; 조병은, 1990). 여기서는 노인의 가족관계를 부부관계, 성인 자녀와의 관계, 손자녀와의 관계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부부관계를 살펴보면,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년기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 부부관계의 질이 중요해진다. 노인의 부부관계는 개인의 생활만족도, 행복,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Connidis, 1989).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으며(윤현숙, 유희정, 2006), 삶의 만족도도 높으며(김영범, 박준식, 2004). 노년기 적응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주령, 1990).

노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에게서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핵심적인 사회관계라고 할 수 있다(유희정, 2011; 이주일 등, 2008). 이와 일치하게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고 가치관이 일치할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명희, 2000). 또한 자녀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낮고(김태현, 김수정, 1996), 심리적 안녕감이 높으며(윤현숙, 유희정, 2006), 삶의 만족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정, 김명자, 1995). 자녀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자녀와 접촉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원영희, 1995),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접촉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양옥경, 주소희, 2011), 우리나라 노인들에게서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노인의 심리적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다양한 역할을 한다.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역사와 문화를 제공하는 역사가의 역할, 생활 습관이나 지혜를 전수하는 훈육자의 역할, 노화과정이나 가족관계에서의 모델이 되는 역할모델로서의 역할, 상상력을 자극하는 마술사의 역할, 지지체계를 확장시키는 대리모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Kornhaber & Woodward, 1985). 소수이긴 하지만, 조부모 손자녀 관계가 노인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는 노인 조부모에게 지혜와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를 주고, 생산감을 느끼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서동인, 유영주, 1991). 일부 연구자는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사회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제안하고 있다(Langer, 1995).

가족관계와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

어떻게 해야 잘 나이들 수 있을 것인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김경호, 김지훈, 2009; 김미혜, 신경림, 2005; 박미숙, 2010; 이신영, 2010; 이주일, 강연옥, 김지현, 유 경, 2011; 주용국, 2011; Baltes & Baltes, 1990; Crosnoe & Elder, 2002; Vailant & Mukamal, 2001). 이런 연구들에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로 신체건강, 정신건강, 사회활동 참여, 인지기능, 가족관계, 통제감 등이었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서 한국 노인에게는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백지은, 최혜경, 2007; 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Cooney, 2011; 윤현숙, 유희정, 2006; 정여진, 안정신, 2010). 안정신 등(2011)은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비판하면서, 한국 연구에서는 나타나지만 국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와 지원교환’이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족관계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성별에 따라 가족관계의 의미나 성공적 노

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박경란, 이영숙, 2002; 신영희, 이해정, 2009; 정순돌, 2007). 가족관계의 중요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노인은 가족관계 중 자녀와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반면에 남성노인은 배우자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돌, 2007; 한경혜, 홍진국, 2000). 또한 개인의 삶에서 가장 가깝게 여기는 사람을 적도록 했을 때, 60대 남성은 배우자를 일순위로 지목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60대 여성은 자녀를 일순위로 지목한 사람들이 가장 많아,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에게서 배우자와 자녀가 갖는 존재적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장휘숙, 2011). 또한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신영(2009)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주된 요인이 자녀와의 동거 여부로 나타난 반면,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유무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런 선행 연구들은 노인의 성별에 따라 가족관계가 갖는 의미와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연구들에서도 여성노인은 자녀를 남성노인은 배우자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은 자녀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적 노화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성노인은 배우자와의 동반자적인 삶이 성공적 노화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경란, 이영숙, 2002; 이신영,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별에 따라 삶의 중요한 원천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성별에 따라 가족관계와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기초월가치와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

가치(values)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와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심리학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Rokeach, 1968; Schwartz & Bilsky, 1987, 1990; 김연신, 최한나, 2009; 김철민, 1999; 조남국, 1994). 가치란 삶에서 중요한 원칙들을 이끌어내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상황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목표들이다(Schwartz, 1992). 따라서 가치의 내용들은 개인의 동기적 목표가 된다. Schwartz(1992)는 다양한 문화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네 가지 가치 차원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자기초월가치(self-transcendence), 자기고양가치(self-enhancement), 변화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change), 그리고 보수주의(conservation)가 포함된다. 자기고양가치란 개인 자신의 관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 정도를 말하며, 여기에는 권력중시형(power) 가치와 성취중시형(achievement) 가치가 있다. 변화에 대한 개방성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자신의 지적·정서적 관심사를 변화시키는 정도를 뜻하는데, 쾌락주의(hedonism) 가치, 자극추구형(stimulation) 가치, 자기주도형(self-direction) 가치가 여기에 속한다. 보수주의는 대인관계, 제도, 전통에서 제공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호하려는 정도이다. 보수주의에는 전통중시형(tradition) 가치, 동조중시형(conformity) 가치, 안전중시형(security) 가치가 있다.

이 중 자기초월가치는 이기적인 관심사를 초월하여 타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를 뜻하는데, 자기초월가치차원에는 보편주의형(universalism) 가치와 박애형(benevolence) 가치가 있다. 보편주의형 가치란 타인의 복지와 자연에 대한 이해, 감사, 관용, 보존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정의, 평등, 지혜, 세계 평화, 환경 보호 등이 포함된다. 박애형 가치

는 개인이 가까운 타인의 복지의 보존이나 향상에 대한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돕기, 돌봄, 충성 등이 포함된다.

가치는 개인이 궁극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이나 이루고자 하는 방식과 관련되므로(김철민, 1999) 자기초월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Erikson(1982)이 제시한 중년기 이후의 과업인 생산감을 잘 형성하고, 노년기에 인생의 유한성이나 승리감을 경험하여 자아통합을 잘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개인의 관심사가 아니라 대인관계, 자연 등을 중시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은 타인을 중시하므로 다음 세대나 자녀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 생산성을 잘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생산성의 확립은 노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통합을 이루는 데에도 근간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이나 사물을 돌보고 보살핀 사람은 인생의 유안성과 실망을 극복하고 승리감을 경험하며 통합감을 획득할 수 있다(장휘숙, 2006).

그러므로 자기초월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노년기에 통합감을 형성하여 잘 나이들기, 성공적 노화를 이루어가는 데 이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문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노인들이 성별에 따라 삶의 의미 원천으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의미있는 가족관계의 질의 차이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차이가 있는지, 아울러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삶에 의미를 주는 원천에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간에 차이가 있는가?
2. 가족관계를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노인 중에 실제 가족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과 실제 가족관계의 질이 낮은 사람이 성공적 노화에 차이가 있는가?
3. 가족관계의 질과 자기초월가치가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부산시 소재 5개 노인복지관과 김해시 소재 1개 노인복지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스스로 설문지를 읽고 응답이 가능한 사람들은 설문지를 읽고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시력 저하나 독해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면접자가 읽어주고 응답내용을 설문지에 표기하였다. 수거된 562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65명을 제외한 497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노인의 평균 연령은 71.3세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41.0%, 중졸이 23.9%, 대졸이 19.9%, 초졸이 11.5%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 47.7%, '건강'이 43.8%였다. 소득원천은 연금·보조금(25.4%)과 자녀지원(25.1%)이 가장 많았다. 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22.3%, 100만원대가 28.2%가 가장 많았다. 한달 평균 용돈은 20만원대(23.3%)와 30만원대(2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	여	전체
		240 (48.3)	257 (51.7)	497 (100.0)
연령	60-64세	16 (6.7)	55 (21.4)	71 (14.3)
	65-75세	132 (55.0)	136 (53.1)	268 (57.1)
	75-84세	86 (35.8)	45 (17.6)	131 (26.4)
	85세이상	6 (2.5)	5 (1.9)	11 (2.2)
교육 수준	무학	3 (1.3)	2 (0.8)	5 (1.0)
	초졸	17 (7.1)	40 (15.6)	57 (11.5)
	중졸	51 (21.3)	68 (26.5)	119 (23.9)
	고졸	100 (41.7)	104 (40.5)	204 (41.0)
	대졸	61 (25.4)	38 (14.8)	99 (19.9)
	대졸이상	6 (2.5)	3 (1.2)	9 (1.8)
	무응답	2 (0.8)	2 (0.8)	4 (0.8)
종교	불교	109 (45.4)	102 (39.7)	211 (42.5)
	기독교	42 (17.5)	47 (18.3)	89 (17.9)
	천주교	22 (9.2)	41 (16.0)	63 (12.7)
	무교	58 (24.2)	60 (23.3)	118 (23.7)
	기타	6 (2.5)	6 (2.3)	12 (2.4)
	무응답	3 (1.3)	1 (0.4)	4 (0.8)
건강	허약	9 (3.8)	28 (11.0)	37 (7.5)
	보통	110 (45.8)	127 (49.4)	237 (47.7)
	건강	119 (49.6)	99 (38.5)	218 (43.8)
	기타	1 (0.4)	1 (0.4)	2 (0.4)
	무응답	1 (0.4)	2 (0.8)	3 (0.6)
소득 원천	유급활동	19 (7.9)	35 (13.6)	54 (10.9)
	퇴직금	38 (15.8)	34 (13.2)	72 (14.5)
	연금·보조금	68 (28.3)	58 (22.6)	126 (25.4)
	자녀지원	55 (22.9)	66 (25.7)	121 (25.1)
	재산소득	44 (18.3)	42 (16.3)	86 (17.3)
	기타	11 (4.6)	12 (4.7)	23 (4.6)
	무응답	5 (2.1)	10 (3.9)	15 (3.0)
평균 소득	100만원이하	50 (20.8)	61 (23.7)	111 (22.3)
소 득	100만원대	73 (30.4)	67 (26.1)	140 (28.2)
	200만원대	40 (16.7)	42 (16.3)	82 (16.5)
	300만원대	20 (8.3)	27 (10.5)	47 (9.5)
	400만원대	6 (2.5)	5 (1.9)	11 (2.2)
	500만원대	0 (0)	7 (2.7)	7 (1.4)
	600-900만원	3 (1.3)	0 (0)	3 (0.6)
	1000만원이상	0 (0)	2 (0.8)	2 (0.4)
	무응답	48 (20.0)	46 (17.9)	94 (18.9)
용돈	없음	0 (0)	1 (0.4)	1 (0.2)
	10만원미만	19 (7.9)	15 (5.8)	34 (6.8)
	10만원대	22 (9.2)	29 (11.3)	51 (10.3)
	20만원대	54 (22.5)	62 (24.1)	116 (23.3)
	30만원대	53 (22.1)	59 (23.0)	112 (22.5)
	40만원대	32 (13.3)	24 (9.3)	56 (11.3)
	50만원이상	54 (22.5)	51 (19.8)	105 (21.1)
	무응답	6 (2.5)	16 (6.2)	22 (4.4)

()는 %임

타났다.

측정도구

삶의 의미 원천 측정. 삶의 의미 원천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의미 분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Bar-Tur, Savaya & Prager, 2001.; Ebersole, 1998; Fiske & Chiriboga, 1991; Prager, 1998; Reker & Wong, 1988; 주경례, 2006)에서 나타난 영역을 종합하여 11개의 영역을 선정하였다. 11개 영역에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업 및 직업에서의 성취, 취미생활 및 일상의 즐거움, 자기 이해 및 성장, 타인을 돕거나 사회에 봉사하기, 종교나 영적/철학적 생활, 신체 건강, 정신건강, 경제적 여유와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과 마음의 평안 등이 포함되었다. 그 중 가족관계를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세 관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삶의 의미 원천은 5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미 원천으로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관계 측정. 배우자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정현숙(2001)이 개발한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를 정여진(2011)이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존중 8문항과 배려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존중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배우자는 나의 자존심을 세워준다”, “배우자는 내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 등이 있으며, 배려를 측정하는 문항에는 “배우자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 “배우자는 내 부탁을 미루지 않고 즉시 해준다” 등이 있다. 5점 척도로(0=전혀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된 전체 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970이었다. 하

위차원인 존중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953이었고, 배려의 Cronbach's α 는 .953이었다.

자녀관계 및 손자녀 관계 측정. 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조병은(1988)이 개발한 척도를 김은주(1994)가 자녀관계에 맞게 수정한 척도 중 애정 결속도를 측정하는 문항 6개를 사용하였다. 손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병은(1988)의 척도를 손자녀관계에 걸맞게 수정한 황혜영(2004)의 척도 중 손자녀와의 애정 결속도를 측정하는 문항 5개를 사용하였다. 자녀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에는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고민거리나 문제가 있을 때 자녀와 의논하는지, 자녀가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자녀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에는 손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지, 손자녀의 생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녀관계 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821이었고, 손자녀관계 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856이었다.

성공적 노화 측정.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기 위해 안정신, 강인, 김윤정(2009)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의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상의 안녕'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항의 예로는 "나는 시간을 보람있게 잘 보내는 편이다", "나는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 활동하고 있다",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등의 7개 문항이 있다. '심리사회적 안녕'은 자아를 인정하고 자신의 생애 만족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는 문항에는 "나는 다른 사

람을 돕는 것에 관심이 있다", "나는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 "나의 지나온 인생에 만족하고 있다" 등 13개의 문항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기성장과 자기관리 및 자신의 삶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능력으로서, 이를 측정하는 문항에는 "내 자신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해낼 수 있다", "내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등 5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체 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946이었다. 하위 차원별로 살펴보면, 심리사회적 안녕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894, 자기효능감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877, 일상의 안녕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850이었다.

자기초월가치 측정. Schwartz(1992)의 삶의 가치 척도(Schwartz Value Survey) 중 신현희(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초월가치차원과 관련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자기초월 가치는 박애형과 보편주의형의 두 개의 가치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애형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물질이나 부보다는 마음의 평화가 나에게 중요하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 즉 내 능력껏 남을 돕고 위로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복수할 생각이나 원한을 품지 않고 남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등이 있다. 보편주의형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편안하고 안락한 것보다는 힘이 들더라도 의미있는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불의를 바로 잡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등 사회 정의가 나에게 중요하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등이 있다. 각각은 9문항,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치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

요한지 4점 척도상에서 평정토록 하였다(0=전혀 그렇지 않다, 3=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초월가치 전체 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929이었고, 하위차원인 박애형은 Cronbach's α 가 .873이었으며, 보편주의의 Cronbach's α 는 .855였다.

결 과

1.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과 가족관계의 질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한국노인이 실제 삶의 의미 원천 중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족관계의 질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

노인은 다양한 삶의 원천 중 어떤 것을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지, 성별에 따라 중요한 삶의 의미원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노인들은 삶의 의미 원천으로 배우자, 자녀, 정신건강, 손자녀, 신체건강, 심리적 안정감과 마음의 평안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의미 원천 영역들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남성노인은 모든 삶의 의미 원천 영역 중 배우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여성노인은 자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종교 또는 영적/철학적

생활' 영역에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83)=-2.48$, $p<.05$.

다음으로, 남녀 간의 중요한 삶의 의미 영역의 순위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각각의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 영역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응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남성노인이 삶의 의미 원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가족관계, 즉 자녀와 손자녀 및 배우자 각각의 중요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남성노인은 배우자를 자녀에 비해 더 중요한

표 2.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 평균 및 표준편차

	남성노인	여성노인	전체
자녀	4.39 (.86)	4.51 (.83)	4.44 (.86)
손자녀	4.27 (.90)	4.29 (.89)	4.27 (.91)
배우자	4.55 (.86)	4.40 (.91)	4.47 (.89)
친구관계	4.06 (.87)	3.96 (.89)	4.02 (.88)
학업 및 직업에서의 성취	3.75 (.96)	3.72 (1.03)	3.74 (1.01)
취미생활 및 일상의 즐거움	3.98 (.85)	4.04 (.94)	4.02 (.90)
자기 이해 및 성장	3.86 (.87)	3.80 (.96)	3.81 (.92)
타인을 돕거나 사회에 봉사하기	3.74 (.94)	3.69 (1.07)	3.71 (1.02)
종교 또는 영적/철학적 생활	3.44 (1.08)*	3.69 (1.12)*	3.58 (1.10)
신체건강	4.25 (.87)	4.22 (.94)	4.22 (.90)
정신건강	4.32 (.85)	4.30 (.88)	4.30 (.87)
경제적 여유와 안정감	4.08 (.92)	4.12 (.98)	4.09 (.95)
심리적 안정감과 마음의 평안	4.26 (.81)	4.19 (.94)	4.21 (.88)

* $p<.05$

삶의 의미 원천 평정은 5점 척도로(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 4점 이상은 의미원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임.

표 3.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가족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남성노인	여성노인	전체
자녀관계	2.35 (.43)	2.32 (.44)	2.33 (.43)
손자녀관계	2.53 (.43)	2.48 (.45)	2.50 (.44)
배우자관계	2.89 (.69)***	2.43 (.86)***	2.70 (.80)
배우자에게 존중받기	2.81 (.74)***	3.96 (.89)***	2.61 (.82)
배우자에게 배려받기	2.96 (.73)***	2.60 (.90)***	2.78 (.84)

* $p<.05$, ** $p<.01$, *** $p<.001$

삶의 의미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t(234)=2.33$, $p<.05$], 자녀를 손자녀에 비해 더 중요한 의미 원천으로 생각하였고 [$t(232)=2.50$, $p<.001$], 배우자를 손자녀에 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8)=3.95$, $p<.05$]. 또한 남성노인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중 어떤 영역을 더 중요한 삶의 원천으로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을 신체건강에 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8)=2.43$, $p<.05$].

여성노인이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요 5개 영역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여성노인은 자녀를 배우자에 비해 더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으로 생각하였고 [$t(238)=2.43$, $p<.05$], 자녀를 손자녀에 비해 더 중요한 삶의 원천으로 생각하였다 [$t(246)=4.75$, $p<.001$]. 배우자와 손자녀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t(238)=1.47$, $p>.05$]. 또한 여성노인도 정신건강을 신체건강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으로 생각하였다 [$t(252)=2.05$, $p<.05$].

즉 남성노인은 배우자를 자녀나 손자녀에 비해 더욱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으로 생각한 반면, 여성노인은 자녀를 배우자나 손자녀에 비해 더 중요

한 삶의 의미 원천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 신체건강에 비해 정신건강이 더 중요한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가족관계 질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가족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자녀관계와 손자녀관계의 질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배우자관계의 질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t(457)=5.16$, $p<.001$].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배우자관계의 질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배우자존중은 여성노인이 더 높았으며 [$t(481)=5.17$, $p<.001$], 배우자배려는 남성노인이 더 높았다 [$t(459)=4.71$, $p<.001$]. 즉 여성노인이 배우자에게 더 존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 남성노인은 배우자가 자신을 더 많이 배려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관계의 질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

가족관계를 삶의 중요한 의미 원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이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이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가족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성공적 노화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알아보는 것이었다. 또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가족관계 중 배우자, 자녀, 손자녀관계의 질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를 의미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가족관계의 의미 정도를 5점 척도 중 4점 이상 응답한 사람들, 즉 가족관계의 의미가 중요하

표 4. 가족관계 의미 정도가 높은 남성노인 중 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성공적 노화의 평균 및 표준편차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손자녀관계	
	상집단(N=70)	하집단(N=72)	상집단(N=74)	하집단(N=75)	상집단(N=87)	하집단(N=81)
성공적 노화	2.17 (.48)***	1.88 (.38)***	2.27 (.44)***	1.83 (.32)***	2.23 (.43)***	1.86 (.29)***
심리사회적 안녕	2.13 (.49)***	1.84 (.39)***	2.23 (.46)***	1.79 (.34)***	2.20 (.43)***	1.82 (.33)***
자기효능감	2.11 (.57)**	1.83 (.51)**	2.18 (.58)***	1.78 (.51)***	2.18 (.54)***	1.79 (.40)***
일상의 안녕	2.28 (.48)***	1.97 (.39)***	2.38 (.45)***	1.96 (.34)***	2.30 (.47)***	2.03 (.36)***

* $p<.05$, ** $p<.01$, *** $p<.001$

표 5. 가족관계 의미 정도가 높은 여성노인 중 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성공적 노화의 평균 및 표준편차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손자녀관계	
	상집단(N=75)	하집단(N=67)	상집단(N=97)	하집단(N=87)	상집단(N=89)	하집단(N=81)
성공적 노화	2.21 (.46)***	1.82 (.43)***	2.14 (.42)***	1.85 (.46)***	2.16 (.38)***	1.86 (.47)***
심리사회적 안녕	2.17 (.48)***	1.78 (.45)***	2.11 (.45)***	1.84 (.43)***	2.13 (.41)***	1.83 (.46)***
자기효능감	2.15 (.61)***	1.72 (.52)***	2.02 (.52)*	1.80 (.63)*	2.07 (.52)**	1.81 (.61)**
일상의 안녕	2.30 (.47)***	1.96 (.48)***	2.26 (.45)***	1.93 (.50)***	2.27 (.39)***	1.93 (.50)***

* $p<.05$, ** $p<.01$, *** $p<.001$

혹은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한정하였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각각 상하 33%로 나눈 뒤,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성노인의 경우에 각각의 가족관계에서 질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배우자관계의 질이 높은 남성노인들이 성공적 노화가 높았고($t(129)=3.89$, $p<.001$), 하위차원인 심리사회적 안녕과($t(133)=3.78$, $p<.001$) 자기효능감도 높고($t(138)=3.07$, $p<.01$), 일상의 안녕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138)=4.12$, $p<.001$). 또한 자녀관계의 질이 높은 남성노인이 성공적 노화 점수도 높았고($t(132)=3.50$, $p<.001$), 하위차원인 심리사회적 안녕($t(136)=6.25$, $p<.001$), 자기효능감($t(145)=4.38$, $p<.001$) 및 일상의 안녕도 높았다($t(144)=6.31$, $p<.001$). 마지막으로 손자녀관계의 질

이 높은 남성노인이 낮은 남성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 점수가 높고($t(148)=6.06$, $p<.001$), 하위차원 심리사회적 안녕($t(153)=6.09$, $p<.001$), 자기효능감($t(163)=4.16$, $p<.001$)과 일상의 안녕감도 높았다($t(163)=3.98$, $p<.001$).

다음으로 여성노인이 각각의 가족관계에서 질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배우자관계의 질이 높은 여성노인들이 질이 낮은 여성노인들에 비해 성공적 노화가 높았고($t(125)=4.96$, $p<.001$), 하위차원인 심리사회적 안녕과($t(131)=4.79$, $p<.001$) 자기효능감도 높고($t(136)=4.38$, $p<.001$), 일상의 안녕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132)=4.12$, $p<.001$). 또한 자녀관계의 질이 높은 여성노인이 낮은 여성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 점수도 높았고($t(155)=4.10$, $p<.001$), 하위차원인 심리사회적 안녕($t(166)=3.89$,

표 6. 노인의 인구통계학적변인, 가족관계의 의미부여, 가족관계의 질, 자기초월가치와 성공적 노화 간의 상관

	성별	연령	학력	건강	평균소득	자녀 의미부여	손자녀 의미부여	배우자 의미부여	자녀 관계	손자녀 관계	배우자 관계	자기초월 가치
연령	-.283											
학력	-.172**	-.103*										
건강	-.156**	.006	.144**									
평균소득	.038	-.213**	.284**	-.035								
자녀의미부여	.068	-.143**	.131**	.027	.183**							
손자녀의미부여	.009	-.040	.119**	.022	.197**	.714***						
배우자의미부여	-.083	.019	.198**	.095*	.084	.419**	.346***					
자녀관계	-.040	.050	.037	.088	.108*	.332**	.257**	.176**				
손자녀관계	-.054	-.059	.108*	.036	.132**	.381**	.374**	.169**	.547**			
배우자관계	-.231**	.158**	.093*	.140**	.040	.113*	.153**	.346**	.284**	.210**		
자기초월가치	-.072	.066	.168**	.164**	.080	.229**	.268**	.099*	.283**	.356**	.196**	
성공적노화	-.044	-.074	.131**	.246**	.183**	.162**	.198**	.081	.350**	.339**	.335**	.561**

* $p < .05$, ** $p < .01$, *** $p < .001$

$p < .001$], 자기효능감[$t(164)=2.61$, $p < .05$] 및 일상의 안녕도 높았다[$t(168)=4.53$, $p < .001$]. 그리고 손자녀관계의 질이 높은 여성노인들이 낮은 사람에 비해 성공적 노화가 높았고[$t(136)=4.43$, $p < .001$], 하위차원인 심리사회적 안녕과[$t(148)=4.30$, $p < .001$] 자기효능감도 높고[$t(154)=2.87$, $p < .01$], 일상의 안녕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144)=4.75$, $p < .001$].

종합하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가족관계를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으로 생각하면서 실제 가족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들이 질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성공적 노화를 잘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가족관계의 질,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는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의 가족관계의 질, 자기초월가치 및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 가족관계의 질, 자기초월가치 및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

인구통계학적 변인,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 가족관계의 중요도, 가족관계의 질 및 성공적 노화, 자기초월가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7.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가족관계, 자기초월가치의 회귀분석

모형	변인	β	t	R^2	ΔR^2	F
1	건강	.257	3.264***			
	평균소득	.152	1.871 ⁺	.083	.083**	4.471**
	학력	-.077	-.943			
2	건강	.223	3.206**			
	평균소득	.097	1.371			
	학력	-.016	-.223			
	배우자관계	.242	3.458***	.331	.248***	12.022***
	자녀관계	.181	2.275**			
3	손자녀관계	.279	3.563***			
	건강	.193	3.024**			
	평균소득	.108	1.659			
	학력	-.012	-.193			
	배우자관계	.157	2.384*	.444	.114***	16.566***
	자녀관계	.144	1.969 ⁺			
	손자녀관계	.214	2.945**			
	자기초월가치	.365	5.446***			

* $p<.05$, ** $p<.01$, *** $p<.001$, ⁺ $p<.06$

모형 1: 건강, 평균소득, 학력; 모형 2: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손자녀관계 추가; 모형 3: 자기초월가치 추가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다른 주요 변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긴 하지만 그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우선 학력은 자기초월가치와($r=.168$, $p<.01$), 성공적 노화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r=.131$, $p<.01$). 건강 또한 자기초월가치와($r=.164$, $p<.01$), 성공적 노화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r=.246$, $p<.01$). 소득은 자기초월가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080$, $p>.05$) 성공적 노화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r=.183$, $p<.01$).

다음으로, 가족관계의 의미 정도와 다른 주요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관계의 의미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초월가치를 중시하며, 성공적 노화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의 의미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자녀($r=.714$, $p<.001$)와 배우자의 의미

($r=.419$, $p<.01$)도 높았으며, 실제 자녀관계($r=.332$, $p<.01$), 손자녀관계($r=.381$, $p<.01$) 및 배우자관계의 질($r=.113$, $p<.05$)도 높았다. 또한 자기초월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r=.229$, $p<.01$) 성공적 노화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r=.162$, $p<.01$). 마찬가지로 손자녀의 의미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초월가치를 중시하였고($r=.268$, $p<.01$), 성공적 노화 점수도 높았다($r=.198$, $p<.01$). 다시 말하면, 자녀 및 손자녀의 가족관계의 의미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초월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공적 노화 점수도 높았다.

다음으로 실제 가족관계의 질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초월 가치도 높고, 성공적 노화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초월가치($r=.283$, $p<.01$)와 성공적 노화 점수가

표 8.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가족관계, 자기초월가치의 회귀분석

모형	변인	β	t	R^2	ΔR^2	F
1	건강	.285	3.857***	.134	.134***	8.170***
	평균소득	.168	2.180*			
	학력	.089	1.161			
2	건강	.199	2.839**	.276	.142***	9.896***
	평균소득	.123	1.703			
	학력	.015	.205			
	배우자관계	.230	3.186**			
	자녀관계	.138	1.636			
3	손자녀관계	.172	2.064*	.514	.238***	23.404***
	건강	.182	3.147**			
	평균소득	.108	1.812			
	학력	-.003	-.050			
	배우자관계	.187	3.142**			
	자녀관계	.062	.894			
	손자녀관계	.026	.364			
	자기초월가치	.538	8.714***			

* $p < .05$, ** $p < .01$, *** $p < .001$

모형 1: 건강, 평균소득, 학력; 모형 2: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손자녀관계 추가; 모형 3: 자기초월가치 추가

높았으며($r=.350$, $p < .01$), 손자녀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초월가치를 중시하고($r=.356$, $p < .01$) 성공적 노화도 높았다($r=.339$, $p < .01$). 배우자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들도 자기초월가치를 중시하였고($r=.196$, $p < .01$) 성공적 노화도 높았다($r=.335$, $p < .01$). 마지막으로 자기초월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성공적 노화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61$, $p < .01$).

인구통계학적 변인, 가족관계의 질 및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학적변인, 의미원천의 정도 및 관계의 질, 자기초월가치와 성공적 노화 간의 상관분석에서 학력, 건강, 평균소득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손자녀관계와 자기초월

가치가 성공적 노화와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가족관계 및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성과 여성노인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과 8 참고). 모형의 모든 공차한계는 .10이상이며, VIF 값이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고 모형이 타당하였다.

먼저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가족관계의 질 및 자기초월가치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 평균소득, 학력은 성공적 노화의 8.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 149)=4.471$, $p < .01$). 다음으로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손자녀 관계를 추가하여 성공적 노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설명력은 24.8% 증가하여, 가족관계의 질과 건강, 평균소득, 학력은 성공적 노화의 3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 146)=12.022, p<.001$]. 3차 회귀 분석에서 자기초월가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설명력은 11.4% 증가하였고, 건강, 평균소득, 학력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가족관계의 질 및 자기초월가치는 성공적 노화의 44.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7, 145)=16.566, p<.001$].

다음으로 여성노인의 경우, 건강, 평균소득, 학력은 성공적 노화의 1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 159)=8.170, p<.01$]. 다음으로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손자녀관계를 추가하여 성공적 노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설명력은 14.2% 증가하여, 가족관계의 질과 건강, 평균소득, 학력은 성공적 노화의 27.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 156)=9.896, p<.001$]. 3차 회귀 분석에서 자기초월가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설명력은 23.8% 증가하였고, 건강, 평균소득, 학력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가족관계의 질 및 자기초월가치는 성공적 노화의 5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7, 155)=23.404, p<.001$].

종합하면 남녀 모두에게서 가족관계의 질과 자기초월가치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의 삶의 의미 원천은 무엇인지, 가족관계가 의미 원천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가족관계의 질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차이가 있는지, 가족관계의 질과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을 확인한 결과, 한국 노인들에게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 영역은 배우자, 자녀, 정신건강, 손자녀, 신체건강, 심리적 안정감과 마음의 평안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배우자와 자녀 및 손자녀 즉 모든 가족관계가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가족관계가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Ebersole, 1998; Klinger, 1977). 특이할만한 점은 남녀에 따라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이 다르다는 것인데, 남성노인은 자녀나 손자녀에 비해 배우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여성노인은 배우자나 손자녀에 비해 자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남성은 배우자를 더 중시하며, 여성은 자녀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백지은, 최혜경, 2007; 장휘숙, 2011).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가족관계가 한국노인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이지만, 남녀에 따라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며, 자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녀에게 더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관계를 덜 중시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덜 유능하며, 배우자에게 평생동안 돌봄을 받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 남성노인의 경우, 은퇴 이후 배우자와의 일대일관계가 독립한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반면 오래도록 육아를 통해 자녀와 관계가 친밀한 여성노인은 자녀의 독립 이후에도 자녀가 중요한 사회관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정신건강을 신체건강에 비해 더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의 행복을 위해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장애가 없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Rowe와 Kahn(1997)의 주장과 비교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Rowe와 Kahn은 성공적으로 노화하기 위해서는 병이나 장애가 없고 신체 및 인지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삶의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노년기에 신체적 쇠퇴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이전의 young-old 노인들보다는 75세 이상의 old-old 노인들의 신체적 쇠퇴는 더더욱 당연한 과정이며, 이러한 자연스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와 국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한 안정신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와 관련된 요소 외에 정신적 건강이나 중용과 같은 심리적 요소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령화 사회의 한국노인들에게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신체 기능의 감소를 경험하는 노인의 삶의 의미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른 가족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배우자관계의 질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차원에서는 여성노인이 배우자에게 더 존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 남성노인은 배우자가 자신을 더 많이 배려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배우자관계의 질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많은 여

성노인들이 남성노인에 비해 결혼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주미정, 정영숙, 2009)와도 관련지어볼 수 있다. 남성노인은 돌봄을 받는 입장에서 배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하고 있고, 여성노인의 존중은 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들은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관여로 건강행동이 더 나아지며, 돌봄을 받지만, 가사노동 및 돌봄의 역할 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까지 제공하는 여성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덜 만족스러워할 수 있다(이민아, 2009). 이신숙(1995)은 배우자가 있는 고령 여성노인은 사별한 고령 여성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는데 이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배우자가 부담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한국노인의 경우 성별에 따른 배우자의 의미와 행복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연구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관계를 중요한 삶의 의미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족관계의 질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성공적 노화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모든 가족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심리사회적 안녕이 높고, 자기효능감도 높았으며, 일상의 안녕감도 더 많이 느끼고 있어 성공적 노화 점수가 높았다. 이는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가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안정신 등, 2011; 윤현숙, 유희정, 2006; 정여진, 안정신, 2010; 최혜경, 2008). 배우자, 자녀 등의 의미있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다(Vaillant,

2002). 특히 한국은 개인주의 문화인 서구 사회와 다른 집단주의 문화로, 가족과 같은 사회관계가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송예현, 2001). 그러므로 한국 노인의 행복과 성공적 노화를 고려할 때 가족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의미 원천으로서의 가족관계의 질 및 성공적 노화와 자기초월가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강, 평균소득, 학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가족관계의 질 및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의 질,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남성노인의 경우 건강, 평균소득, 학력은 성공적 노화의 8.3%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의 질을 추가하여 설명력이 24.8%로 증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자기초월가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11.4% 증가하였다. 즉 남성노인의 경우, 건강, 평균소득, 학력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가족관계의 질 및 자기초월가치는 성공적 노화의 44.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 건강, 평균소득, 학력은 성공적 노화의 13.4%를 설명하였고,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손자녀관계를 추가하여 알아본 결과 설명력은 14.2% 증가하였으며, 자기초월가치를 추가한 결과 설명력은 23.9% 증가하였다. 즉 여성노인의 경우, 건강, 평균소득, 학력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가족관계의 질 및 자기초월가치는 성공적 노화의 5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가족관계의 질과 자기초월가치는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노인의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결과를 지지할 뿐 아니라(안

정신 등, 2011; 최혜경, 2008),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초월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관심사를 초월하여 타인이나 자연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더 많이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 즉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영숙(2011)은 한국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노화의 개념, 즉 성숙한 노화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유학사상을 기반으로 한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자신의 행복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젊은 세대의 필요와 불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한국노인에게 타인의 복지와 자연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인지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가까운 타인의 복지의 보존이나 향상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봉사활동 등을 고취시키는 것이 한국노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과 김해에 거주하는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은 경제적, 성별, 계층적인 특성이 다양한 집단이므로 이를 고려한 대상의 선별이 이루어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중요도와 실제 지각하고 있는 관계의 질이 다를 수 고려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가 3점 척도였기 때문에, 2점 이상의 점수를 가족관계의 질이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평정한 점수를 바탕으로 가족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질을 더 넓은 범위의 척도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러 한계가 있지만,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삶의 의미 원천을 알아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였다. 또한 높은 의미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실제 지각된 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고,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인으로 자기초월가치라는 새로운 요소를 제기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유진 (2011).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돌봄 상황, 양육지각, 자원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73-97.

강주령 (1990). 노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공수자, 한규석, 이은희 (2004).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모형 개발: 자존심의 매개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243-263.

권미애, 김태현 (2008).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활동 집단과 경제활동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4), 1089-1111.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경호, 김지훈 (2009). 한국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요인의 구조분석. *한국노년학*, 29(1), 71-87.

김도환 (2001). 도시 노인의 가족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10, 171-193.

김미혜, 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김연신, 최한나 (2009).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16.

김영범, 박준식 (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서울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169-185.

김영선 (1999).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원배 (2009).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활동이론과 자원이론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유경 (2000). 세대간의 유대관계와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노부모와 성인 자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은주 (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결속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김태현, 김수정 (1996). 노인이 지각한 세대적 결속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 110-129.

김태현, 김동배, 김애순, 김미혜, 이영진(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 19(1), 61-81.

김철민 (1999). 가치관 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개념 정의, 가치요소와 측정방법을 중심으로. *학생활연구*, 6, 53-78.

김현지 (2008).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김효정, 김명자 (1995).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 13(3), 36-46.

박경란, 이영숙 (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박미숙 (2010). 노인이 인지하는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석사논문.
- 백지은, 최혜경 (2007).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137-153.
- 서동인, 유영주 (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아동학회지, 12(2), 154-172.
- 송예현 (2001). 노인이 인지하는 가족지지와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0(1), 473-483.
- 신현희 (2011). 자기초월가치와 환경보존행동 및 친환경행동의도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영희, 이해정 (2009). 일 도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29(4), 1327-1340.
- 신희석 (2000). 생의 의미가 중년 주부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1), 29-45.
- 심미성 (2006). 스트레스 완충자원으로서의 삶의 의미의 역할.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논문.
- 안정신, 강인, 김윤정 (2009).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 13(4), 225-245.
- 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Cooney, M. T. (2011). 성공적 노화연구의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3), 35-54.
- 양옥경, 주소희 (2011). 독거노인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7, 321-347.
- 오선영 (2008).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노인의 가족기능과 외로움. 노인복지연구, 42, 267-290.
- 원영희 (1995). 동·별거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2), 97-116.
- 유희정 (2011). 노년기 세대관계 유형에 관한 중단연구(1):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1, 87-111.
- 윤현숙, 유희정 (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5-31.
- 이민아 (2009). 한국 노인과 행복: 결혼 상태에 따른 우울도와 성차.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9, 113-128.
- 이신숙 (1995).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의 지원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3, 159-179.
- 이신영 (2009). 자녀 동거여부에 따른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젠더와 문화, 2(1), 125-149.
- 이신영 (2010).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성별 비교 연구. 젠더와 문화, 3(1), 99-130.
- 이주일, 강연옥, 김지현, 유 경 (2011). 생산적 노화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 및 생산적 노화 척도의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1), 1-27.
- 이주일, 박군석, 유경, 김영범, 장숙량, 윤현숙, 유희정, 김동현 (2008). 성공적인 한국 노인의 삶. 서울: 학지사.
- 임은기, 정태연 (2009). 한국 노인의 행복 요인 탐색과 척도 개발. 한국노년학, 29(3), 1141-1158.
- 장휘숙 (2006). 성인심리학: 성인발달, 노화, 죽음. 서울: 박영사.
- 장휘숙 (2011). 호위대 모델에 기초한 한국 중년 성인들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1-18.
- 정순돌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

- 화에 관한 인식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7(4), 829-845.
- 정여진 (2011). 노인의 부부친밀감과 자녀에 대한 애착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정여진, 안정신 (2010).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족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30(2), 535-550.
- 정영숙 (2011). 한국 여성노인의 잘 나이들기: 성숙한 노화 개념의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56.
- 정태연 (2008). 한국노년학에서 다룬 노인의 심리적 특성: 역사적 고찰과 미래의 과제. *한국노년학*, 28(4), 815-829.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224.
- 조남국 (1994). Schwartz와 Bilsky의 보편적 가치 구조 이론에 대한 방법적 비판: SSA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2), 55-69.
- 조명희 (2000).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응용과학연구*, 7(1), 213-223.
- 조병은 (1988).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aged parents. University of Delaware 박사논문.
- 조병은 (1990). 노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결속도와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1), 105-124.
- 주경례 (2006). 삶의 의미 척도의 구성: 동기적 구성요인. 부산대 대학원 석사논문.
- 주미정, 정영숙 (2009). 내적 통제성과 후회 경험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4), 15-36.
- 주용국 (2011). 전문직 은퇴자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한국직업교육학*, 30(1), 75-96.
- 최명심, 손정락 (2007). 삶의 의미 수준이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51-967.
- 최수정 (2001). 도구개발을 통한 한국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최혜경 (2008). 한국 노인들의 기대에 따른 성공적인 노화: 개념 형성과 중재방안의 탐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145-168.
- 한경혜, 홍진국 (2002).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12(2), 55-80.
- 한미정, 최정윤 (1999).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67-181.
- 홍숙자 (2002). 노년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황혜영 (2004). 조모의 지원 및 조모-손자녀 관계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취업모 가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Successful aging: Perspective from the behavioral sc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Tur, L., Savaya, R., & Prager, E. (2001). Sources of meaning of life for young and old israeli jew and arabs. *Journal of Aging Studies*, 15(3), 253-269.
- Battista J., & Almond, R. (1973). The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Psychiatry*, 36, 409-427.
- Baumeister, R. F. (1991). *Meaning of Life*. New

- York: Guilford Press.
- Connidis, I. A. (1989). *Family ties and aging*. Toronto & Vancouver: Buttrworths.
- Crosnoe, R., & Elder, G. H. (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309-328.
- Debats, D. L. (1996). Meaning in life: Clinical relevance and predictive power.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503-516.
- Debats, D. L., Drost, J., & Hansen, P. (1995). Experiences of meaning in life: A combin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6, 359-374.
- Debat, D. L., van der Lubbe, P. M., & Wezeman, F. R. A. (1993). On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Life Legard Index (LRI): A measure of meaningful lif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337-345.
- DeVogler, K. L., & Ebersole, P. (1981). Adult's meaning in life. *Psychological Reports*, 49(1), 87-90.
- DeVogler, K. L., & Ebersole, P. (1983). Young adolescents' meaning in life. *Psychological Reports*, 52(2), 427-431.
- Ebersole, P. (1998). Types and Depth of Written Life Meaning. In I. B. Weiner, *Personality and Clinical Psychology Series* (pp.179-). Routledge.
- Ebersole, P., & DePaola, S. (1987). Mean in in life categories o later life souples. *Journal of Psychology*, 121, 185-192.
- Emmons, R. A. (1997). Motives and goals. In R. Hogan, & J. A. Johnso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pp485-51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 Fiske, M., & Chiriboga, D. A. (1991). *Change and Continuity in Adult Life*. San Francisco: Jossey-Bass.
- Frankl, V. E. (1963). *Men's searching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Harlow, L. L., Newcomb, M. D., & Bentler, P. M. (1986).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5-21.
- Klinger, E. (1977). *Meaning and void: Inner experience and the incentives in people's liv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ornhaber, A., & Woodward, K. L. (1985). *Grandparents/grandchildren: the vital connection*.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Langer, N. (1995). Grandparents and adult grandchildren: What do they do for one another? In J. Hendricks (Ed.), *The ties of later life* (pp.171-179). New York: Baywood.
- O'Connor, K., & Chamberlain, K. (1996). Dimensions of life meaning: A qualitative investigagion at mid-lif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7, 461-477.
- Penick, J. M., & Fallshore, M. (2005). Purpose

- and meaning in highly active seniors. *Journal of Adultspan*, 4(1), 19-35.
- Prager, E. (1998). Observations of personal meaning sources for Israeli age cohorts. *Aging and Mental Health*, 2(2), 128-136.
- Reker, G. T., & Wong, P. T. P. (1988). Aging as an individual process: Toward a theory of personal meaning. In Bitthen, J. and Bengston, V. L. (Eds), *Four stages of life: A theories of aging* (pp.214-246). New York: Springer.
- Rokeach, M. (1968).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San Francisco: Jossey-Bass.
- Rowe, J. W. & Kahn, R. I. (1997).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1995).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99-104.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 Schwartz, S. H., & Bilsky, W. (1987). Toward a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50-562.
- Schwartz, S. H., & Bilsky, W. (1990). Toward a theory of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78-891.
- Shaw, B. A., Krause, N., & Bennett, J. (2007). Tracking changes in social relations throughout late life. *The Journal of Gerontology*, 62(2), 90-99.
- Shaffer, D. R. (2008).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Wadsworth: Cengage Learning.
- Streib, G., & Bick, R. (1980).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29-149.
- Taylor, S. J., & Ebersole, P. (1993). Young children's meaning in life, *Psychological Reports*, 73(3), 1099-1104.
- Vaillant, G. E. (1994). Successful ag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from 45-year study. In Tompso, E. H. Jr. (Ed), *Older man's lives*, 22-41. Thousan Oaks CA: Sage.
- Vaillant, G. E. (2002). *Aging Well*. Boston: Little Brown.
- Vaillant, G. E., & Mukamal, K. (2001). successful aging,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6), 839-847.
- Zika, S., & Chamberlain, K. (1992). On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in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3, 133-145.

1차 원고 접수: 2012. 1. 15.

수정 원고 접수: 2012. 2. 11.

최종 게재 결정: 2012. 2. 12

Effect of Family Relations as a Source of Meaning of Life and Self-transcendence Value on Successful Aging In Korean Elders

Young-Sook Chong Seol-Ae Jo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g-Shin An Yeo-Jin Jeo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family relations as a source of meaning of life and self-transcendence value on successful aging in the elders of Korea. The result was as follows: First, Korean elders considered that family relations as the most important domain from the 11 domains suggested. Physical and mental health were also regarded as critical domains including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the different results were reported between the group with high intimacy family relations and the group with relatively lower family relations in terms of successful aging. Lastly,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tial elements and factors in successful aging based on multiple regressions. This study concluded that family relations and self-transcendence valu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uccessful aging..

Keywords: meaning of life, family relations, successful aging, self-transcendence value

